

서해 바닷가의 역사기행

오 석 민 (문화재연구부 연구위원)



충청도 서해안의 뱃길

여름은 피서의 계절이다. 그리고 산이나 계곡과 더불어 바다는 자연스럽게 인파의 물결을 이룬다. 그런데 과거 우리 선조들은 주로 바다를 이용하여 많은 물자를 운송하였음을 아는 이는 드물다. 나라의 재정을 지탱하는 세곡을 실어나르는 세곡선은 물론이요, 경강상인 등으로 불리는 상인들의 활동무대 또한 바다였다. 또한 전쟁이 일면 바다는 보급로의 구실을 하였다. 이순신 장군의 놀라운 활약은 역시 왜군의 보급로 차단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컸던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피서철 바다를 찾는 길에 그러한 역사적 현장을 찾는 일 또한 뜻 있는 발길이 될 것이다. 더욱이 충청남도 서해안은 과거 서울로 향하는 요로(要路)에 해당하였으므로, 살피볼 만한 곳이 많을 수밖에 없다. 역대 이래로 중앙정부의 재정은 삼남, 경상·전라·충청의 조세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았다. 그런 까닭에 삼남에서 서울로 가는 뱃길이 중요하였고, 이를 위한 국가시설들이 곳곳에 설치되었다.

옛 뱃길을 살펴보면, 암초가 많아 항해가 어려웠던 곳에는 어김없이 원활한 항해와 적병의 침입을 막기 위한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었다. 그런데 암초가 발달한 지역은, 지금은 바닷가 비경이라 꼽히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갯바위는 바다낚시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며, 부근 어항(漁港)에는 미식가들을 유혹하는 먹거리가 지천이다. 피서와 정치, 레포츠, 식도락, 그리고 역사적 의의를 되새길 수도 있는 복합적인 여행이 가능한 셈이다. 충청남도 서해안의 그러한 여행길을 가보자.

서천 마량진과 동백정

삼남에서 서울로 향하는 충청도의 뱃길은 금강 이북이

었다. 현재의 서천군은 옛 한산·비인·서천 고을이 병합된 행정구역인데, 비인 고을 앞바다에 암초가 발달되어 뱃길을 방해하였다. 마량진(馬梁津)은 이러한 연유로 효종 7년(1656)에 설치된 군사시설이었다.

마량진 첨사(僉使)가 주둔했던 진성(津城) 주변에는 동백나무 숲과 함께 동백정이라는 정자가 조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숲가에 위치한 신당(神堂) 또한 마량진과 관련이 깊은 의례 장소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는 1540년 험한 바다에서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라는 계시를 받고, 아울러 동백숲도 가꾸었다고 하는 말도 전해지기도 한다.

지금은 동백정으로 가려면 화력발전소를 돌아서 들어가야 한다. 과거에는 군데군데 늪지를 형성하는 길을 조심스럽게 건넜다고 하니, 속칭 '바닷길'이 열린다고 하는 진도나 무창포 등과 마찬가지로 바닷가의 섬이 육지에 이어진 지형임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그리고 바닷가에서 동백정 능선을 향하여 찍은 옛 사진을 보면 휴양지로서는 더할 나위가 없었던 곳임을 알 수 있다.

보령 수군절도사영, 오천성

보령시는 옛 수군절도사영(水軍節度使營)이 있었던 곳이다. 수군절도사영은 보통 '오천성(鰲川城)'이라 한다. 조선왕조가 망할 무렵이었던 1901년 4월에, 절도사영을



| 마량진 |

중심으로 옛 보령현 금신면 주변 지역과 서해의 여러 섬들을 관할하는 오천군을 신설했던 탓에 붙여진 이름이라. 오천군은 서해의 황금어장인 어청도[현 전라북도 옥구군]까지 관할하였으니, 조선시대 홍주목 관할의 섬들을 거의 그대로 인계받은 셈이다.

오천성은 광천만 끝에 위치하고 있다. 홍주목으로 갈 수 있는 바다 입구에 위치한 방어기지인 셈이다. 그리고 충청도 해안, 즉 내포(內浦)의 바다를 지키는 총 사령부이다. 조선 초 왜구가 날뛰던 시기에는 병마절도사영이 해미에 있었으니, 육군과 수군의 사령부가 모두 바닷가에 입지했었다. 왜구가 잠잠해진 후 비로소 병마절도사



| 갈매곶 성지 |



| 오천성 |



| 원산도 해수욕장 |

영은 청주로 옮겨졌다.

오천성은 또한 천주교 순교지로 유명한 곳이다. 조선 후기, 지금으로 치면 지역 군사령부에서 사상범들을 다루었던 관개로, 병영(兵營)이나 수영(水營)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배출되었다. 오천성에 투옥되었다가 처형당한 순교자들이 묻혔던 갈매못이 그러한 천주교 성지였다.

오천성에서는 멀리 원산도가 바다다 보인다. 영목과 원산도는 모두 오천성의 수군절도사 휘하의 군사가 주둔하고 있었던 곳이다. 세곡선이 도착하면 원산진(元山津)의 별장이 책임을 지고 경기도 관할지역까지 선박의 호송 책임을 맡았었다.

지금 원산도는 섬마을 해수욕장으로 유명하다. 조선시대 그곳은 국마장, 즉 나라에서 말을 키우던 목장이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전쟁터에서도 쓸 수 있는 강인한

말을 키우기 위해서는 겨울에도 말을 방목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맹수의 피해는 염두에 두어야 했다. 그런 이유로 섬이나 바닷가 반도 모양의 지역을 골라 목장을 만들었는데, 충청도 서해안 내포 고을에는 많은 목장들이 있었다. 원산도 이웃 삼시도에는 국가의 사슴 목장이 있었던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도 있다.

안면도의 금산(禁山)

이제 안면도는 서울 수도권의 하루 나들이 코스가 되었다. 울창한 송림과 바다가 함께 하는 곳으로, 서해안고속도로 홍성톨게이트를 나서면 30분이면 충분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다.

| 안면도 휴양림 |



드넓게 펼쳐진 모래사장에서 할미바위 뒤편 낙조는 예전부터 서해의 대표적인 명소였다. 그와 함께 해안에서 그리 멀지 않은 휴양림의 쪽 뺨은 송림은 여름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그 휴양림이 조선시대 금산(禁山)이었음을 아는 이는 얼마나 될까? 뱃속이 누런 까닭에 황장목(黃腸木)이라 불렀던 고유 수종의 소나무는 선조들이 가장 아꼈던 목재였던 것이다.

물길을 이용하여 목재를 운반해야 했던 시기에 바닷가 송림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했던 곳이었다. 안면도 송림은 그러한 유산이다. 조선 말 이후 혼란을 틈타 대규모 벌채가 행해졌다. 오죽하면 '도끼 한 자루만 있으면, 먹고 살 수 있다.'고 하였을까?

목재로만 쓰였던 게 아니라, 구운 소금[煮鹽]의 연료가 되었던 탓에 남벌은 너무나 쉽게 진행되었다. 그런 까닭에 안면도에서는 100년이 넘는 황장목을 보기는 어렵다. 운송의 어려움 때문에 그나마 보존되었던 영월이나 봉화 등 소백산 주변의 송림과는 다른 처지였던 셈이다.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면 수령은 저절로 회복되는 것. 체계적인 계획의 진행된다면, 안면도의 매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운하 유적들

안면도가 본래 육지였다는 사실 또한 흥미롭다. 중앙 정부의 세곡선이 태안반도 인근에서 종종 침몰하는 폐해에 골몰하던 중 조선 인조 때 태안 아전 방경잠(房景岑)이 충청감영에 진정하여, 현재의 안면도와 남면 사이를 끊었던 것이다. 한국에 현존하는 유일의 운하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토정 이지함이 안면도의 산수를 좋아하여 자주 들렀고, 이곳을 파낼 것이라는 예언을 남겼다는 전설도 전해진다. 운하가 건설되면서 적돌강, 즉 안면도 내해(內海)에서 직접 서해로 통하게 되어 200여 리의 뱃길이 단축되었다. 그 운하를 일명 '백사수도(白砂水道)'라고도 한다. 천수만 안쪽의 고을, 특히 결성현의 석포포(石串浦, 현 홍성군 결성면 星湖里)에서 서울로 향할 때 주로 사용하였으나, 안면도 바깥 바다에 거친 풍량이 일 때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 길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최초 운하는 안면도가 아니었다. 정작 충청도 해역 가운데 파선의 위험이 가장 컸던 해역은 안홍항 앞 바다였다. 안홍량이라 했던 곳은 난행량(難行梁)이라 부를 정도로 항해가 어려웠던 곳으로, 강화의 손돌목(孫多項, 황해도의 장산곶과 더불어 험한 곳으로 악명을 떨쳤던 곳이다. 손돌목의 험로를 피하기 위하여 고려 때 최이(崔怡), 그리고 조선시대 김안로(金安老)가 김포에 도랑을 파려했던 것처럼, 태안반도를 관통하는 운하를 계획했던 것이다.



| 안면도 연륙교 |



| 굴포운하 |

안흥량은 신진도(新津島)와 마도(馬島)를 거쳐 관수각(官首角)과 가의도(賈誼島)에 이르는 해역(海域)을 말한다. 안흥량에는 암초가 많고, 또한 좁은 수로로서 조류가 빠르며, 간만의 차가 커서 선박 운항이 어려운 관계로 조수의 차가 심하지 않은 밀물을 기다려서 건넜다고 한다. 관수각은 관장항(冠丈項)이라고도 하며, 지령산에 있는 안파사(安波寺)는 조운선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건립한 사찰이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서는 운하(漕渠) 건설을 계획했던 것이다. 태안반도 중간인 남쪽 천수만(淺水灣)과 북쪽 가로림만(加露林灣) 사이의 폭은 매우 좁았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태안읍 인평리, 도내리와 서산군 팔봉면 어송리, 진장리와의 경계에 해당되는 곳이다. 지금은 서산간척지 축조로 지형 변화가 심하나, 그 폭은 불과 10리 미만이었으며, 늪지를 포함하더라도

20여 리에 불과하였다.

현재 그곳 굴포 운하의 자취는 논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변 정비는 고사하고 안내판조차 설치되지 않아서 다녀본 사람조차 길을 찾기 어렵다는 사실은, 우리의 부족한 관심을 절감케 한다.

소근진과 안흥진

소근진성, 그리고 후대의 안흥진성은 해안방어시설이기도 하지만, 험난한 뱃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1927년까지 안흥항 일원에는 정족리 지령산의 산제당, 정족리 문필봉과 남산봉의 성황당, 신진도리 후망봉과 마도산의 성황당이 있었다. 남산봉은 안흥진의 남산이었을 것이고, 신진도 후망봉은 안흥진 전방의 초소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크게 무리는 아닐 것이다.

| 안흥진성 |





자염생산

한편 조선시대 안흥진과 소근진은 태안과는 별개의 특수 군사구역이었다. 즉 태안군수가 아니라, 안흥진 첨절제사가 행정까지 관할하였던 것이다. 현재 안흥항은 신진도와 마도를 연결하는 지점으로 옮겨갔고, 그러한 여파 때문인지 옛 선착장 등이 함몰되고 있어서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안흥항은 바다로 둘러싸인 태안에서도 대표적인 어항으로 꼽힌다. 그리고 바다의 암초가 발달하여 갯바위 낚시꾼들이 몰리는 곳이기도 하다. 미식가들을 불러세우는 해산물의 천국임은 물론이다. 태안을 찾는 길에 안흥항 뒤편 골짜기에 다소곳이 이웃한 안흥진성을 잠시 둘러보는 여유도 나쁘지는 않을 듯하다. 최근 안흥진성에 대한 복원 작업이 진행중이니, 머지 않아서 한국에서는 색다른 전통 '진성(鎭城) 마을'을 기대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의 전통 소금, 자염(煮鹽)

주민들이 말하듯이, 태안반도는 '낙지밭 형국'을 이루어 만(灣)마다 드넓은 갯벌이 발달하였으니, 염밭(鹽田)을 조성할 수 있는 후보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갯벌이 넓게 발달하였고, 안면도 등 곳곳에 송림이 발달하였다.

20세기 천일제염법이 도입되기 전, 선조들은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을 만들었다. 간수, 즉 바닷물을 농축시킨 후 가마에서 긴 시간을 끓여서 소금 결정을 얻었으니, 땀감으로 쓸 목재가 충분하여야 했다.

이 소금을 일러 자염(煮鹽)이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태안반도는 과거 구운 소금의 주산지였다. 이러한 구운 소금의 제조법은 1960년대 이후 아예 자취를 감추었다. 일제강점기에 천일제염법이 도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외국산 '돌소금'〔岩鹽〕이 수입되었으니, 땀감과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자염법이 설 자리가 점차 잠식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태안군 안흥면 마금리 낭금 마을에서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생산법을 재연했다고 한다. 전통을 되살리기 위한 운동의 차원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태안문화원이 주도하고 있다. 다소 외진 위치이지만, 안흥항이나 만리포 해수욕장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길을 찾는 약간의 수고만 더한다면 자녀들에게 뜻있는 체험교육을 소개할 수도 있으리라.

한편 자염에는 갯벌에 함유된 미네랄 등이 풍부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또한 요리에 사용했던 주부들의 말을 빌면, 음식 맛이 다르다고 한다. 이러한 입소문이 퍼지는 것으로 보아 상품성도 갖추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면을 빌어서 활성화되기를 비는 바이다.

백화산 마애불과 태을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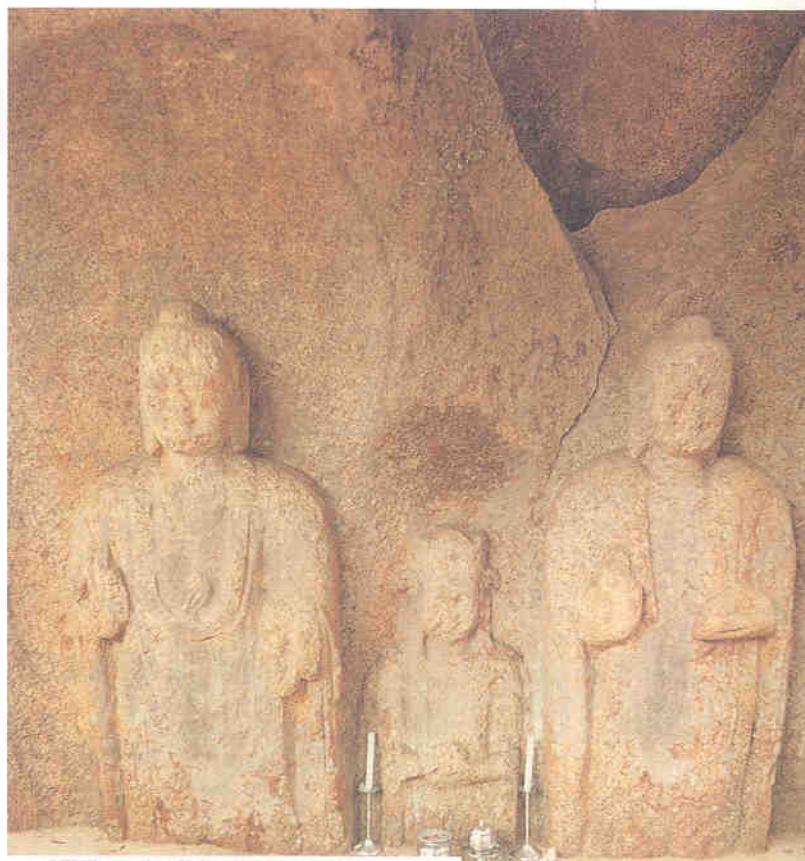
가야산이 전체 내포를 조망할 수 있는 고봉이라면, 백화산은 낙지밭처럼 바다로 뻗은 태안반도를 모두 감시할 수 있는 곳이다. 따라서 이 산을 등지고 읍치(邑治)를 건설함은 당연한 이치일 터. 그리고 그 정상 가까운 곳에는 우리 나라 최초의 마애불이 바다를 굽어보고 있다.

태안 백화산정에 서있는 마애삼존불(보물 제432호)은 조각 기법이 투박하지만, 세계 어느 곳에도 유례가 없는 '2불 1보살'이라는 특이한 삼존(三尊) 구도를 하고 있어서 눈에 띄며, 한국 마애불의 첫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이곳까지 자동차 도로가 개설된 관계로 어렵지 않게 대할 수 있게 되었다. 만리포 등지를 찾는 길에 잠시 경유하는 곳으로 손색이 없다 할 것이다.

마애불이 위치한 곳은 태을암이라는 암자이다. 본래 태일초재(太一醮齋), 즉 태일성에 대한 도교식 제사를 올리던 전각이었다. 태일성은 인간의 오복(五福)을 총괄하는 중요한 별로서,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시대에도 제사가 계속되었다.

그런데 태일성은 구궁(九宮)을 따라 순환하고, 매 궁마다 45년을 머무는 관계로, 태일전 또한 옮겨야 했다. 기록에 따르면, 고려시대 마지막에는 통천(通川)에 있었고, 1434년 경상도 의성으로 옮겼다가, 1477년 충청도 태안으로 옮기도록 결정한 것이다. 이후 관찬사료에 태일전을 옮긴 기록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태안군의 것은 조선 왕조 마지막 태일전이 되는 셈이다.

백제시대에 마애불이 조성되고, 조선시대에 태일전이 건립되었음을 보면, 백화산은 태안 반도의 중심이었음은 분명한 듯하다. 더불어 곳곳에 석각(石刻)이 산재해 있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역사 유적들을 둘러보는 길에, 백화산에서 낙조를 감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 태안마애불 |



| 태을암 |